"한국 학교생활을 함께 체험해요!"

인천해원초, 한·중 학생 공동수업

인천해원초등학교(교장 하상용)에서는 12월 14일 5, 6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홍콩덕신 초등학교 방문 학생 98명과 한·중 학생 공동수업 행사를 실시했다.

해원초는 지난 8월 24일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를 중국 학생들과 함께 가진 이후, 또 한 번 중국 학생들과 함께하게 됐다.

중국 친구와의 우정을 쌓을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가지려는 5, 6학년 친구들은 모두 밝은 미소로 중국 학생들을 맞이했다.

오전 10시쯤 도착한 중국(홍콩) 학생 방문단들과 해원초는 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한 뒤 3교시가 시작된 오전 10시 40분부터는 각각 배정된 학급에서 한국 친구들과 공동수업을 진행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한국과 중국 학생들은 서로가 가진 장점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행복한 글로벌 문화를 만들어 갈 새싹을 틔웠다. 점심시간에는 급식실에서는 함께 공부했던 한국 학생과 홍콩 학생이 어울려 한국의 음식 문화를 직접 소개하고, 체험하며, 언어는 잘 통하지 않지만, 눈빛과 미소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해원초 5학년 노재원 학생은 "중국 친구 關梓謙(KWAN TSZ HIM)를 만나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공부하면서 중국 친구들에게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중국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라고 말했다.

또 6학년 한 학생은 "해원초 방과후학교 중국어부에서 꾸준히 공부한 실력을 토대로 중국 친구들의 말을 알아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 자신이 신기했어요"라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따뜻한 마음이 겨울 추위 이기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교장 이원희)는 11월 7일부터~12월 15일까지 인천광역 시내 빈곤 가정과 독거노인 가정을 위해 모금 활동 및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학생들은 11월 한 달간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아 연탄 3,500장과 라면을 구매해 12월 15일 인천 남구 학익동 인근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며 배려의 마음을 몸소 실천했다.

2시간 이상 연탄 3,500장을 빈곤 가정과 독거노인 가정에 전달했는데,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자치회 스스로 기획한 봉사활동이어서인지 힘들어하기보다는 진지한 태도로 서로를 격려하며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에 전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흐뭇한 미소가 가시지 않았다.

학생자치회 회장 최진성(16) 군은 "날씨가 엄청 춥지만 이러한 추위 속에 혼자 생활하시는 이웃을 생각하니 춥지 않았다."고 말하며 "작은 실천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한 것 같아서 보람도 느낀다."는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원희 교장은 "배웠던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의 제1 덕목인 '인성인 양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다."면서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운동하며 행복한 학교생활 즐긴다

부원중 학교장배 학교스포츠클럽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대회 개최

부원중학교(교장 이순덕)는 11월 29일부터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인 부원관에서 체육시간과 점심시간, 그리고 방과 후에 학교장배 학교스포츠클럽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대회를 열고 있다.

학급별 리그전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스포츠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하고,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움으로써 교우관계를 개선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1학년과 3학년은 탁구와 배드민턴 그리고 야구 결승전이 열려 우승학급이 확정됐고, 2학년의 경우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후 대회가 시작돼 현재 뜨거운 열기 속에 예선전을 치르고 있다. 학급을 대표해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물론이고 응원에 나선 학생들도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즐겁고 쾌활한 분위기 속에 승패를 떠나 경기 자체에 몰두하면서 즐기는 모습이다.

이순덕 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치르면서 학생들이 에너지를 쏟고 집중할 수 있는 교육의 장에서 의욕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쁘다"라고 대회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대미를 장식한 1, 2, 3학년 농구 결승전은 19일 삼산체육관에서 열렸다. 학업은 물론이고 스포츠활동에도 열의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부원중학교 학생들의 뜨거운 땀방울이 한겨울의 추위를 무색게 하고 있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시북부교육지원청 운동부 청렴도 향상 연수

인천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은 13일 북부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및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운동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는 청렴 서약식, 인천교육 홍보동영상 시청, 2016년도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조사 결과 안내, 청렴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청렴도 조사 결과 북부교육지원청 운동부 운영 분야에서 인천시 5개 교육지원청 중 2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청렴 모니터링,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 부패취약종목 컨설팅 장학, 운동부 지도자 협의회 등 소통과 협력을 위한 자체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운동부 운영 분야에서 청렴도 측정 결과 9.38점을 받아 작년 대비 3.09점 대폭 상승하였고, 기관 평균 대비 1.49점이 높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의정부시 문향재 조찬포럼 세계 최고 기록 인증

의정부시 문향재 조찬포럼이 지난 9일 EU OWR로부터 세계 지방자치단체 중 최장기간 정기적인 조찬포럼 개최분야의 세계 최고 기록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7월 26일 KRI한국기록원으로부터 기록인증을 받은 데 이어 새벽을 여는 공직자들의 토론과 경연의 장인 문향재 조찬포럼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기록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미래의 꿈을 다지다

인천옥련초, 2016학년도 Happy dream 진로 한마당 실시

인천옥련초등학교(교장 이기흠)는 11월 30일 5층 각 교실 및 복도와 다목적강당에서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진하고 진로 선택에 필요한 탐색기회를 제공하고자 Happy dream 진로 한마당 축제를 운영했다.

이번 축제는 또래 전문가 부스를 설치해 다양한 직업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지혜롭게 관단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 뜻깊은 시간이 됐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하고 체험보고서를 작성해 다양한 결과물을 전시하며 나의 미래직업 설명회를 개최해 미래 자신의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게 하고 꾸준히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됐다.

이기흠 교장은 "자신의 소질을 알고 계발하며 꿈을 키우는 사람은 마음이 넉넉한 부자이다. 현재의 행복함을 추구함과 동시에 미래의 꿈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는데 힘쓰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며 장차 이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자신의 희망한 미래를 위해 지금의 자신을 가꾸고 실력을 기르고자 애쓰는 옥련 어린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신동이!

인천신석초, 2016학년도 하반기 Sharing Day(나눔의 날)행사

인천신석초등학교(교장 김일영)는 12월 14일 하반기 Sharing Day(나눔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Sharing Day(나눔의 날) 행사는 7월과 12월에 각각 실시되며, 학생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자선 활동 기획을 통해 프로젝트 운영 역량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함양하고 절약, 재사용, 재활용(3R waves)에 의한 나눔의 날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현실과 연계한 배움에 대한 실천과 함께 국제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적 실천 방안을 함께 제공하는 기회가 됐다.

또한, 체험활동은 '진로교육 및 경제교육'과 연계·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경제 활동의 기회가 됐으며 건전한 학생문화의 형성으로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활동 및 교육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행사였다.

Sharing Day(나눔의 날) 행사에 직접 참여해 자신의 물품을 판매하고 다른 사람들의 나눔 물품을 구매한 6학년의 한 학생은 "나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니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겠다"고 말하며, 자원 재활용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김일영 교장은 "이번 나눔의 날 행사를 통해 지구마을 속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증대함으로써 세계시민과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체적 책임감을 더욱더 신장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신석초등학교는 행사 후 남은 물품을 지역의 한 단체에 학교 이름으로 기부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기부 문화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안용섭 기자 ays@